YH사건 사망 김경숙씨 어머니 광주 최 영 자 씨

"억울한 죽음 30년 恨 풀려"

"지난 29년 세월동안 내 딸이 자살했다곤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라. 동생 학비 벌려고 서울까지 간 경숙이가 뭡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겄소. 인제 '제 뜻 이루려고 자살한 독한 년'이라는 소린 듣진 않겄소."

진실위 "투신 자살 조작"

기독교 신자였던 김경숙씨가 기도하고 있는 생전 모습〈왼쪽〉과 어머니 최영자씨.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1979년 8월 YH노조 신민당사 농성사건 당시 숨진 고 김경숙(당시 21세)씨 사건과 관련, "경찰이 투신 자살로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했다"는 결정을 내리자 김씨의 어머니 최영자(75·광주시 동구 소태동)씨는 회한 가득한 눈물을 쏟아냈다.

진실위는 지난 20일 "당시 경찰이 '김씨가 경찰의 진압작전 30분전 동맥을 끊고 투신 자살했다'고 밝혔으나 조사 결과 ▲동맥절단 흔적이 없고 ▲후두부를 쇠파이프로 가격당한 상처가 있었다"며 김씨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실위는 또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정부에 권고했다.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데 대한 기쁨과 그동안의 억울함이 교차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최씨는 "내 딸의 억울함이 풀려 기쁘지만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눈 감은 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며 "이제라도 진실이 가려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숙이가 17살 때 서울 가발공장으로 갔는데, 당시 월급 4만원 받으면 2만원은 집으로 부칠 정도로 착했어. 생활력도 강하고 대찼지."

김씨는 광주 양동시장의 봉제공장에서 일하다 서울로 올라가 YH무역이란 가발공장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최씨는 지난 1979년 8월 12일 딸의 사고 소식을 당시 광주 모 경찰서 '박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해 들었다. "그냥 딸이 투신자살했다고 하면서 서울로 데리고 갑디다. 왜 죽었는지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일주일이나 서울 여기저기를 끌고 다니면서 빨리 화장하라고만 합디다."

박 부장의 회유에 못 이겨 고향인 무등산 자락에 유골을 뿌린 최씨는 "지 동생 학비 벌러 간 딸이 뭐 땜시 자살 하겠어. 누군가에 의해 죽은 것이제. 알면서도 지금까지 꾹 참고 살아왔지"라며 한숨지었다.

최씨는 "내 몸 아프고 딸 생일 돌아오면 무척 보고 싶어진다"며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줄 알았다. 주위에서 딸의 죽음을 놓고 손가락질할 때도 오늘 같은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YH노조 농성사건=가발 제조업체인 YH무역이 부당 폐업하자 노조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1979년 8월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으로, 1970년대 한국 노동운동사에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 중 노조 집행위원장인 김경숙씨가 사망하고, 172명의 여성 근로자와 신민당 당원 26명이 강제 연행됐다. 사건 직후 폭력 진압과 강제 연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이로 인해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여성 다리 촬영 무죄' 여성계 반발

법원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여성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또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의 경우 사람의 존엄성을 해칠 만큼 성적 부위나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돼야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최근 1심과 항소심·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로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김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다른 사람의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촬영했다 해도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허락없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인 의도가 있으며, 사진을 찍힌 피해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산행 '조심' 광주·전남 사고 잇따라

봄 행락철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서 등산도중 추락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수동 용진산(해발 349m) 정상에 오르던 최모(여·41·장성군 진원면)씨가 30m 절벽 아래로 추락, 헬기 등을 동원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최씨가 남편과 함께 산을 오르다 발을 헛딛어 절벽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해발 1천187m) 봉황대 부근에서 하산하던 김모(여·74·동구 운림동)씨가 넘어져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께에는 북구 문흥동 삼각산(해발 264m)에서 등산하던 이모(여·54·북구 문흥동)씨가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했다가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등산로에서 김모(여·52세·서구 풍암동)씨가 미끄러지면서 발목 등을 다쳤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랑·평화 넘치길" 부활절 예배·미사

23일 부활절을 맞아 광주·전남 교회와 성당은 예배와 미사를 열어 사랑과 평화가 온 세상에 넘치기를 기원했다.

광주기독교단협의회는 23일 새벽 5시 광주공원 시민회관에서 기독교인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나눔'을 주제로 부활절 기념 연합예배를 가졌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도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북동 주교좌 본당에서 부활대축일미사를 열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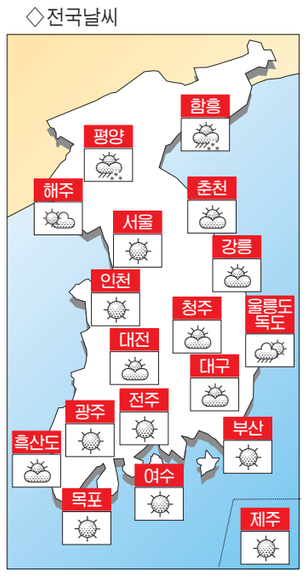
아침 안개 조심

3월 24일 (음 2월 17일) 날씨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벗어나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5~17℃
목 포	구름 조금	4~14℃
여 수	구름 조금	7~14℃
완 도	구름 조금	5~14℃
구 례	구름 조금	4~18℃
해 남	구름 조금	2~15℃
장 흥	구름 조금	2~16℃
고 흥	구름 조금	4~15℃
순 천	구름 조금	3~18℃
영 광	구름 조금	2~14℃
진 도	구름 조금	4~14℃
전 주	구름 많음	4~15℃
남 원	구름 많음	2~15℃
흑산도	구름 조금	5~11℃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2.5~3.0m

목 포 밀물〈 03:39 15:37 썰물〈 08:47 20:53
여 수 밀물〈 10:21 22:48 썰물〈 04:18 16:18

▲해뜸 06:31 ▲해짐 18:47 ▲달뜸 21:20 ▲달짐 07:1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날 씨						
최저/최고	3/15	4/15	4/15	3/17	3/18	5/20

'물가 잡기' 품목별 담당관제 도입

광주시 종합대책 마련

광주시가 최근 급등하는 각종 원자재와 생활필수품 가격을 잡기 위해 품목별 담당관제를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물가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23일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 48가지와 생활필수품 78개에 대한 담당관을 지정, 이들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품목별 소관 부서를 지정, 1주일에 한 번씩 재래시장과 대형 할인매장을 중심으로 이들 품목의 가격 동향을 파악한 뒤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 국세청,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를 붙이지 않거나 표시 가격보다 올려받는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 및 단속을 펴기로 했다. 또 가격 안정 또는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혜택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종합적인 물가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5일 산하 5개 자치구 등 20여개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열고 물가안정 세부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원가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물가인상에 편승하려는 품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